

“광주 복합쇼핑몰, 체류형 관광 전략·상생 담아야”

강기정 시장-전문가 ‘월요 대화’
익산, 반대 소상공인 설득 노력
“상권 침해 중장기 지원책 필요”
姜 “이익공유, 지속 가능성” 강조

현대백화점그룹과 신세계프라퍼티가 유치전에 뛰어난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 관련, 소상공인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 여부가 사업 추진의 최대 관건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상권 침해 등의 우려로 반대하는 소상공인 단체를 설득하기 위해 광주 시와 유통업체가 상생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0일 오후 시청에서 18번째 월요대화를 열어 ‘광주의 내일이 기대되는 복합쇼핑몰’을 주제로 유통·도시재생 전문가, 소상공인지원기관 관계자 등과 의견을 나눴다.

이날 대화에는 조춘환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새한국유통학회 사무국장), 조윤아 익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숙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환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장, 장명균 백석문화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양숙경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장, 김준영 시 신활력추진본부장, 주재희 시 경제장업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스포츠, 문화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객 유치 전략 마련 △복합쇼핑몰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홍보 △유통업체-지자체-전통시장 간 네트워크 구축 △복합쇼핑몰과 연계한 국비 지원사업 발굴 △광주만의 색깔을 입힌 복합쇼핑몰 유치로 관광도시 위상 구축 △도시브랜드 홍보 계기 활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숙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복합쇼핑몰 유치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자체는 물론 소상공인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며 “다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유통 공룡’이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소

통하며 시너지에 대해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윤아 익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익산시에도 코스트코가 입점한다고 할 때 소상공인의 반발이 컸지만, 설득을 통해 상생을 이끌어냈다”며 “광주시도 지역 소상공인은 물론 시민을 대상으로 소셜네트워킹서비스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펼쳐 지역 이슈로서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숙경 소상공인지원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장은 “하남, 대전 등은 대형 숙박시설이 들어오면서 체류형 비즈니스 관광객이 대거 늘어나고, 경제활성화로 이어졌다”며 “다만 쇼핑몰 유치로 발생하는 집객효과, 매출액 상승 등 긍정적인 효과에서 소상공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자생력을 보장할 수 있는 광주 차원의 중장기적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환경록 광주전남연구원 융복합산업연구실장은 “복합쇼핑몰 유치만으로 지역 일자리 확대, 도시브랜드 강화, 지역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복합쇼핑몰 데이터 공유를 통한 지역 교통·관광정책 수립,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등을 계기로 광주가 ‘디지털 신유통’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복합쇼핑몰 이슈가 던져진 이후 소상공인과의 상생, 이익공유 등 많은 고민을 해왔는데, 이번 회의를 통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광주만의 색을 담은 지속가능한 광주형 복합쇼핑몰이 구축되도록 더욱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4월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이 대통령 공약으로 확정되자 같은 해 9월에는 유치 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현대백화점그룹과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사전검토 중이다. 앞으로 지역사회 논의기구 운영, 국비 지원사업 발굴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지역 상권 상생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성수 기자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부터 시작된다.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21일 광주 시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이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23일
김양배 기자

민주, 헌법개정특위 활동 시작...“5·18 정신 담을 것”

기본권 확대·권력구조·제도 논의
“올해 3월 목표 자체 개헌안 제출”
위원장에 윤호중 “개헌, 시대 사명”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헌법 개정 추진을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3월까지 자체 개헌안을 내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개헌안에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이 담긴 헌법 전문을 포함해, 동물권 등 시대상의 변화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단순한 권력구조 개편을 넘어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5·18 정신이 담긴 헌법 전문부터 생명·환경·정보기본·동물권 등 기본권 확대까지, 국민이 동의하는 권력구조와 선거 제도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과 의지를 담아 국민 삶을 바꾸는 개헌, 대한민국 미래상을 담은 미래 개헌이 돼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이라 해도 국회 정당의 개헌 논의를 틀어막을 수 없다”며 “다행히 윤석열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피력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개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임기 1년을 단축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점이 가장 주목된다”며 “대통령 말의 무게가 있는

만큼 결코 실언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에도 골든타임이 있다”며 “올 3월을 목표로 민주당 개헌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은 4선 윤호중 의원이 맡았다.

특위 내 총강과 기본권, 지방분권 및 국민주권, 국회 및 정부형태 등을 다루는 3개 분과를 둘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현행 헌법에 대해, “국가외피는 커져갔지만 정체성 고민은 제자리 걸음이었다”며 “지금의 모습과 생각이 반영된 자화상을 다시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김홍탁의 Branding Class

“마케팅의 모든 길은 브랜딩으로 통한다”

- 【모집 인원】 30명 내외
- 【강의 장소】 전남일보 승정문화관
- 【강의 기간】 2023년 3월20일 개강-5월29일 종강 (10회+보너스 과정)
- 【강의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6:30-8:30(2시간)
- 【전형 방법】 입학원서(소정양식) 1부, 반명함판 사진 1매, 세금계산서 요청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수강료 : 220만원(부가세 포함)
입금계좌 : 농협 / 605-01-226718 / (주)전남일보
- 【접수 마감】 2023년 3월 중순
- 【문의】 전남일보사업본부 (062-519-0730)

- 【모집 대상】 브랜딩에 관한 전반적 지식 습득과 브랜딩의 실천 경험 원하시는 분
나만의 브랜드 컨셉으로 시장에서 'Power Brand'가 되길 희망하시는 분
전문가의 피드백을 받아 대중의 관점에서 브랜드를 개선하고 싶으신 분
기업/지방자치단체·홍보관련 부서 실무 담당하시는 분
- 【강사 이력】 김홍탁 전남일보 총괄 콘텐츠 디렉터
International Board of Directors_뉴욕 One Club for Creativity
전(前) 제일기획 Creative Innovation Group 마스터
연세대학교 객원교수
빌게이츠재단 주관 '세상을 돕는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위원·멘토
[UN+One Show New York] 주관 '지속가능 솔루션 개발 프로젝트' 심사위원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자문위원
국가브랜드 프로젝트 총감독

